

## 도발비사문천입상

비사문천(일명: 다문천)은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 중 한 명입니다. 비사문천은 북방의 수호신으로서 사천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천왕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비사문천이라고 불립니다.

도발비사문천은 무장한 모습의 신으로 묘사되며 나라의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입니다. 도발은 당나라 시대(618-907) 서쪽 지역의 왕국으로서, 전설에 따르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왕국을 도발비사문천이 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설이 도발비사문천을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숭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비사문천상은 중생들에게 사악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요괴인 사귀를 짓밟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도발비사문천은 소용돌이치는 구름 위에 있는 대지의 여신인 지천이 손바닥으로 받쳐주고 있으며, 그 옆으로 니란바와 비란바, 두 작은 요괴가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발비사문천의 왼손에는 석가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불탑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악한 영향을 없애고 불도를 적대시하는 자를 퇴치하기 위한 경찰봉과 비슷한 모양의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이 도발비사문천상은 160cm의 높이로 9세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녹나무 하나를 통째로 조각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고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불상의 모습은 얼굴의 특징과 균형 잡힌 신체에서 강인한 힘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